

미술자료 수집 20년... '걸어다니는 사전'

문화가

이 사람

<14>

가나미술연구소

자료실장

김달진 씨

가나미술연구소의 자료실장 김달진(42)씨는 화려한 전시장의 뒤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미술관련 자료를 모아 정돈하게 분류·정리하면서 한국현대미술사 1차자료를 보존·정리해온 1등 공신이다. 작년 가나미술연구소로 옮기기 전 16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했던 그는 「걸어다니는 자료사전」 「금요일의 사나이」로 불렸다. 전시 오픈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화랑가에 검은색 자료 가방을 들머리고 나타나 전시팸플릿을 「현장수거」하고 이런 자료를 거의 외우다시피해 붙은 별명이다.

그의 자료수집 범위는 광복 이전부터 최근까지 각종 단행전, 개인전, 해외전, 해외작가국내전, 미술관련 연감, 저서 등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95년에는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란 책도 냈다. 당시 이 책을 통해 각 자료마다 틀리게 표기된 전시회 제목, 작가의 생몰연

대 등이 낱알이 지적됐고, 바로잡혔다. 가나미술연구소로 옮긴 이후로도 그는 거의 매일밤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정리를 하고 2개월에 한번씩 서울의 1백 50여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정보를 지도와 함께 소개하는 「화랑-미술관 전시회 가이드」를 펴내 일반인들의 미술감상 정보를 제공

전시 팸플릿서 연감-화가저서까지
한국현대미술사 자료정리분야 개척
‘월간미술 특별상’ 수상 보람

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노력을 기려 미술전문잡지 「월간미술」은 그를 제2회 월간미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 10일 시상식을 갖는다.

그가 미술자료 수집·정리라는 우리 문화계의 불모지에 뛰어든 것은 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한

것이 계기였다.

이종섭, 박수근 등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미술의 매력에 흠뻑 빠져 제 나름대로 집지도 보고, 도서관도 가보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때 예상외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서게 됐지요...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한 그는 고교를 졸업하면 73년부터 딱치는 대로 자료를 모았다. 그러던 77년 어느날 잡지 등에서 오던 미술관련 기사 스크랩을 한아름 안고서 무작정 흥익대의 이경성 박물관장을 찾아갔다. 이 관장은 「지금으...



◇「최근 미술계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하는 김달진씨.

<趙寅元기자>

등에 기고하는 바람에 미술계에서는 좀 걸끄러운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다. 별짓지, 임시적으로만 머무른대다 아들이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어 부인이 신문배달에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수장이 그에게는 더욱 갑작스럽다. 김씨는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우리 미술계가 자료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에 받은 상금

5백만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대학과 대학원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8순기념 논문집 제작비로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연두리에 17평 3천4백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지만 이 관장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일에 쓰자고 하니 아내가 더욱 반겼다」며 「이 관장님이 하도 팸플릿서며 화를 내셔서 격정」이라고 밝혔다.

<金翰秀기자>

한글

김 광 규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거의 해마다 바뀌어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우리집 아이들과 조카를 열한살이 지난 십여년간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때마다 입시방법이 달랐다. 얼마전에는 입시생 학부모들이 풍화문에 모여서 대모를 하는 풍습이 심했는데...